

또 약속 어긴 정부... 세월호 연내 인양 무산

동절기 기상 악화·장비 고체...빨라야 내년 3~4월

4·16가족협 “바뀐 장비 기술검토 보고서 공개해야”

정부가 연내 완료하겠다고 수차례 약속 해온 세월호 인양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특히 정부가 인양 장비를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업체 선정과 기술 검토가 잘못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기상 등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 ‘선미 들기’ 작업을 내년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당초 세월호 인양시기를 지난 8월 말로 예상했다. 하지만 세월호 바닥에 리프팅빔을 설치해 배를 들어올리는 ‘선미 들기’ 작업에 차질이 생겨 9월과 12월로 두 차례 연기했다.

현재 선수에는 리프팅빔 18개가 모두 설치됐지만 선미에는 10개 중 3개만 설치돼 있다. 세월호 밑에 단단한 퇴적층이 만들어져 리프팅빔을 끼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검토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됐던 사항으로, 정부가 문제를 알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않아 세월호 인양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동절기 기상을 고려해 연내에는 사전 작업만 하고 선미 들기는 내년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선미 들기 이후 세월호를 목포신항으로 옮기는데 2~3개월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3~4월에

야 인양 작업이 끝날 전망이다. 내년 6월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선미 들기 이후 인양 장비도 바꾸기로 했다. 당초 리프팅빔에 와이어를 연결, ‘해상 크레인’을 사용해 들어올린 세월호를 ‘플로팅 독’에 실어 목포신항으로 옮기려고 했다. 하지만 해상 크레인과 플로팅 독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동절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해상 크레인을 유압 잭이 장착된 ‘재킹 바지선’으로, 플로팅 독을 ‘반잠수식 선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킹 바지선은 자체적으로 탑재한 유압 잭의 힘으로 세월호를 끌어올려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인양력도 2만3000t으로 해상 크레인(1만2000t)보다 크다. 반잠수식 선박은 플로팅 독보다 잠수 깊이는 낮지만

길이 146m의 세월호 선체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예인선의 도움 없이 장거리 이동 및 미세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선체인양분과장은 “해수부는 그동안 지키지도 못할 인양 약속을 수차례 해놓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완료 시기와 방식을 변경하면서 가족들을 혼란스럽고, 아프게 하고 있다”며 “인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분과장은 “해상 크레인 대신 재킹 바지선 2척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 검토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바뀐 인양 장비에 대한 기술검토 보고서를 우선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화순 초교서 집단괴롭힘

다문화학생 머리카락 잘라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집단 괴롭힘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화순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이 학교 6학년 여학생 3명이 쉬는 시간 교실 내에서 A양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학생들은 가위바위보로 머리카락 자르기 게임을 하며 옆에서 게임을 지켜보던 A양의 앞 머리카락 일부를 잘랐다.

지난 9월에는 한 학생이 실과시간에 바느질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A양을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를 본 A양이 반에서 유일한 다문화가정 학생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괴롭힘의 원인이 단지 다문화가정 학생이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으나 학교 측은 이를 부인했다.

학교 측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17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5·18민주광장서 고싸움놀이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고싸움놀이 축제’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고싸움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저꾸로 가는 세상...조비오 신부님이 더욱 그림습니다”

광주 소화자매원서 선종 후 첫 추모식...유지 계승 협상 전담

“세상이 저꾸로 돌아가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지혜와 용기를 주셨던 조비오 신부님이 더욱 생각납니다. 지행합일(知行合一)하셨던 조 신부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우리 사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난 12일 광주시 남구 소화자매원에서 ‘조비오 신부 유지계승 협상 전달식’이 열렸다. 지난 9월 선종한 조비오 신부 첫 번째 추모식으로 조 신부가 이사장을 역임했

던 소화자매원과 창립에 도움을 줬던 들 불야학동우회가 공동 주관했다.

나주 가톨릭농민회를 지도하는 등 생전 농민들을 생각했던 유지를 받들기 위한 자리였다. 조카인 조영대 용봉동성당 주임신부는 “조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어느 장례식장 앞을 지나다 ‘화환 대신 쌀을 받아 가난한 이에게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본인 장례식

에도 부의금 대신 쌀을 받아 소화자매원에 기부하라고 유언을 남기시는 등 항상 농민을 생각하셨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윤대려사 소화자매원장 주녀는 “개원한지 40년 이래 원생들이 협실을 받은 적은 처음이다”고 밝혀 잠시 숙연해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장병국 국회의원, 이강 들불동우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지선 백양사 방장 스님이 찾아 눈길을 끌었다. 지선 스님은 조비오 신부, 강신석 목사와

함께 광주민주화운동을 함께한 동지다.

지선 스님은 “10년 전배웠던 조 신부님은 종교를 떠나 존경하고 의지했던 도반(함께 도를 닦는 벗)이었다”며 “하나 돌씩 지도자들이 떠나가셔서 마음이 무겁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현 우리나라 상황을 보셨으면 분명 저에게 함께 행동에 나서자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들불동우회 등은 ‘조비오신부기념사업회’(가칭)를 설립해 매년 유지계승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상 전달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눔행사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6
해질녘 17:27
달출몰 17:33
달지름 06:14

포근한 가을 날씨

가을비 내리지만 출지 않아요.

◇지역별 날씨(℃)

광주	주 차차호려저비	13/18	보 성	차차호려저비	11/18
목포	포 차차호려저비	14/18	순 천	차차호려저비	13/19
여수	여 수차차호려저비	14/18	영 광	차차호려저비	13/19
나주	나 주차차호려저비	11/17	진 도	차차호려저비	14/18
완도	완 도차차호려저비	14/18	전 주	차차호려저비	13/18
구례	구 레차차호려저비	11/18	군 산	차차호려저비	13/17
강진	강 진차차호려저비	13/19	남 원	차차호려저비	13/18
해남	해 남차차호려저비	13/19	흑산도	차차호려저비	14/16
장성	장 성차차호려저비	10/1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	북동~동	1.0~2.0	북서~북	1.0~2.5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5	서~북서	0.5~1.5
	면바다(동)	동~남동	1.0~2.0	서~북서	1.0~2.5
서해	면바다(서)	동~남동	1.5~2.5	북서~북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45	01:18	19:16	13:55
여수	02:14	08:42	14:42	20:56

◇주간 날씨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8/13	2/16	5/17	6/18	10/17	9/16	7/14

◇생활지수

	보통
	보통
	감기
	낮음

대박 예감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방문객 97% “다시 방문”...18일 정식 개장

오는 18일 정식 개장하는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야시장’이 3주간 임시개장 기간 동안 다시 찾고 싶은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13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최근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방문객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200명(97%)이 ‘다시 방문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다시 방문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7명(3%) 뿐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29%(121명)가 ‘야시장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답했고, 58%(121명)는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답한 응답

자는 1%(2명)에 불과했다.

먹거리리에 특화된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의 음식 맛은 ‘매우 만족’ 28%(59명), ‘만족’ 60%(124명) 등 방문객 8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가격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58%(68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족한다’ 32%(63명), ‘비싸다’ 20%(40명), ‘매우 만족한다’ 13%(25명), ‘매우 비싸다’ 1%(3명) 등으로 다소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다.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은 오는 18일 정식 개장하며 연말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운영된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지법 “박광태 전 시장 상품권 깡 가담 직원 파면 정당”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상품권 깡’에 가담한 혐의로 파면된 박 전 시장의 전담담당 직원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6~2009년 박 전 시장의 의견 담담으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일부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권 깡’으로 1

억4000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시는 2014년 4월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A씨 등 의전팀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유통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